

전기차 부품·신재생에너지로 미래 선도기업 도약

국내 최초 800V 권선 현대·기아 공급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 성과 뚜렷 LS오도, 미래차 부품 매출 1조 눈앞 회사채 발행 통해 친환경 사업 확대



구자열 LS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추진해 온 친환경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발굴 및 투자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LS전선의 주력 사업 포트폴리오는 전기차용 권선, 해상 풍력 케이블, 태양광 등 미래 신사업을 중심으로 확대됐고, LS오도모티브는 미래차 핵심 부품 사업 수주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구자열 회장이 2015년부터 강조해 온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사업 발굴 의지가 LS그룹을 전통 제조업 회사에서 미래 선도기업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구자열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신사업 분야의 성과를 조기 창출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지속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LS전선, 전기차·해상풍력·태양광서 두각

자동차 산업의 무게 중심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가운데 LS전선은 첨단 기술력을 앞세워 전기차 시대의 핵심 사업자로 떠오르고 있다.

주력 부품은 전기차에 공급되는 ‘구동 모터용 권선(Enamel wire)’이다. 전기차 업계의 충전 속도 경쟁으로 인해 고전압 부품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LS전선은 2016년부터 미국 GM의 ‘쉐보레 볼트(Bolt) EV’에 400V급 권선을 공급한데



전기차에 공급하는 구동모터용 권선을 생산하는 LS전선 경북 구미 사업장(왼쪽 사진)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등에 모두 사용하는 LS오도모티브의 48V DCDC컨버터. 사진 | LG전선·LS오도모티브

LS그룹 회사채 발행 자금 계획

구분	내용
주요 분야	전기차 관련 전장 부품, 신재생에너지
세부 내용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업종 지분 투자
투자 시기	2021년~2024년 사이
금액	1840억 원

LS그룹, 전기차 부품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주요 현황

계열사	주요 사업 내용
LS전선	전기차용 하이브리드 구동모터용 권선, 초고압해제케이블
LS오도모티브	48V DCDC 컨버터, 환형 터미널, VESS
LS일렉트릭	차세대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ET	강원 정선에 8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준공

이어, 올해부터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에 800V급 구동모터용 권선을 단독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권선 관련 매출은 향후 6년간 2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전기차용 알루미늄 전선 소재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구리 대신 알루미늄을 사용해 무게를 40% 이상 줄인 제품으로 일본 글로벌 전장업체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LS전선은 알루미늄 전선의 비율이 2020년 약 5%에서 2025년 30% 이상으로 급속히 커질 것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LS전선의 올해 전기차 부품 매출은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또한 LS전선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미국, 네덜란드, 바레인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해상풍력발전사업 세계 1위인 덴마크 오스테드와 해저 케이블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해 향후 5년간 국내외 사업에서 우선 공급권을 갖는다. 또한 대만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1차 사업에서 현재까지 발주된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모두 수주했다.

태양광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의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22.9kV급 수중 케이블과 태양광 전용 DC 케이블 등을 개발해 고흥 남정, 해남 솔라시도 등 30여 곳의 태양광발전소에 케이블을 공급했다.

태양광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의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22.9kV급 수중 케이블과 태양광 전용 DC 케이블 등을 개발해 고흥 남정, 해남 솔라시도 등 30여 곳의 태양광발전소에 케이블을 공급했다.

태양광 사업도 확장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의 노하우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22.9kV급 수중 케이블과 태양광 전용 DC 케이블 등을 개발해 고흥 남정, 해남 솔라시도 등 30여 곳의 태양광발전소에 케이블을 공급했다.

●LS오도모티브, 미래차 부품 수주 호조

LS오도모티브도 내연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차 부품 사업으로의 변화에 성공하며 매출 1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LS오도모티브의 미래차 관련 핵심 부품은 ‘48V DCDC 컨버터’로 2019~2020년 기준 약 2300억 원을 수주했다. 메인 배터리 전압을 저전압으로 변환시키고,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메인

배터리 충전전압으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양방향 컨버터로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등에 모두 사용된다.

이러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동모터에서 사용되는 환형터미널(Ring Shape Terminal)은 약 2000억 원을 수주했으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소음 차량이 주행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 외부로 경보음을 출력하는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VESS)은 약 360억 원을 수주했다.

LS오도모티브 관계자는 “한 발 앞서 미래차 관련 친환경 전기차 제품기술을 개발해왔고, 그 노력이 글로벌 업체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LS는 11일 회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1840억 원의 자금을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관련 업종에 지분을 투자해 그동안 관련 자회사들이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사업 확대와 시너지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 발행은 그린뉴딜 산업에 대응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친환경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 발행은 그린뉴딜 산업에 대응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친환경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S그룹 관계자는 “이번 회사채 발행은 그린뉴딜 산업에 대응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친환경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LG에너지솔루션 ESG 위원회 신미남, 여미숙, 안덕근, 한승수 이사(왼쪽부터).

LG에너지솔루션, ESG 경영 가속화

‘ESG위원회’ 신설...위원회에 신미남 사외이사 내부거래·감사·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

LG에너지솔루션이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속도를 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신미남 여미숙 안덕근 한승수 이사 등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인 CEO(최고경영자) 김종현 사장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신미남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미남 전 케이옥션 대표, 여미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승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한 바 있다.

ESG 위원회는 ESG 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성과 등을 분석하고 ESG와 관련해 중대한 리스크 발생 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이사회에서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결의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외이사회 구성 대상 거래 ▲상장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기타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여미숙 안덕근 한승수)과 사내이사인 CFO 이창실 전무 등 총 4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여미숙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내부 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한승수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는 사외이사 2인(안덕근 신미남)과 기타비상무이사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안덕근 사외이사가 맡는다.

원성열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AV용 전기식 작동기’ 개발 착수

(미래형 개인 비행체)

184억 규모...2024년까지 개발 예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신현우)가 드론택시 등 신개념 항공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의 핵심 구동장치인 ‘전기식 작동기’ 개발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산업통상

자원부의 ‘차세대 운송수단용 고신뢰 전기식 작동기(EMA)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4년간 총사업비는 184억 원 규모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PAV용 전기식 작동기는 실제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비행체의 핵심 구성품인 만큼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화시스템과 미국 오버에어가 공동 개발중인 PAV 버터플라이 이미지.

아직 국내에는 유인 항공기 플랫폼이 없어 개발을 수행한 업체가 없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업체 최초로 PAV용 고신뢰

도 전기식 작동기 개발에 성공하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해 민간항공기용 시장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친환경·고효율이라는 트렌드에 따라 기존 항공기에 적용되던 유압식 구동장치 대신 전기식 구동장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글로벌 전기식 작동기 시장은 2025년 약 3조 원 규모에서 2035년에는 약 1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16일(수) 음력: 5월 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부나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 서는 확고한 자기 노력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머리를 쓰라. 주변인을 믿지 마라.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본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 부리지 마라.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켜 수 있으니 크기의 정진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으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매사에 많은 예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인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신중하고 문기를 거둬야 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시시한 일들로 인해 행방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금난에 불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며 곤란만 야기 시킨다.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오늘의 날씨 16일(수)

서울	20/20	인천	20/20	춘천	20/30
20 29		20 28		19 28	
강릉	80/70	대전	30/20	전주	30/30
18 21		20 27		20 28	
광주	30/30	대구	60/30	부산	60/30
20 28		19 24		20 24	
창원	60/3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19 25		21 24		날씨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0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신임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